

Deuteronomy Ch. 17

Verse 1

“Do not slaughter to YHWH your Elohim a bull or sheep which has any blemish, any evil matter, for that is an abomination to YHWH your Elohim.”

PaRDeS

Peshat: Yisrael must not bring a defective animal as an offering to YHWH. An offering presented at His altar must meet the standard He has established.

Remez: The blemished offering hints at giving YHWH what costs us little while reserving our best for ourselves.

Drash: Worship reveals priorities. When YHWH receives only what remains after our desires have been satisfied, the problem is deeper than the offering—it reveals the condition of the heart.

Sod: Wholeness of the offering reflects the call toward **תָּמִים (tamim)**, wholeheartedness and integrity before YHWH. The outer offering points toward an undivided inner life.

Energetic Flow

Offering → Examination → Wholeness → Honor → Nearness

Before something is brought near to YHWH, it is examined. What approaches the Holy One should reflect honor rather than carelessness.

Meaning

The previous chapter guarded the altar against **foreign worship**; this verse now guards the **quality of worship** offered at that altar. It is possible to worship the right Elohim at the right altar and still approach Him carelessly.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네 하나님 야훼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야훼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페샤트: 이스라엘은 흠 있는 짐승을 야훼께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 그분의 제단에 드리는 제물은 그분께서 정하신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

레메즈: 흠 있는 제물은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을 위해 남겨 두면서 야훼께는 별로 희생되지 않는 것을 드리는 태도를 암시한다.

드라쉬: 예배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러낸다. 자신의 욕망을 먼저 채운 뒤 남은 것만 야훼께 드린다면 문제는 제물보다 더 깊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를 보여 준다.

소드: 온전한 제물은 야훼 앞에서의 **תָּמִים (타뎀)**, 곧 온전함과 성실함을 향한 부르심을 반영한다. 외적인 제물은 나뉘지 않은 내면의 삶을 가리킨다.

제물 → 살핌 → 온전함 → 존귀 → 가까이 나아감

야훼께 가까이 가져가기 전에 그것을 살핀다. 거룩하신 분께 나아가는 것은 무성의함이 아니라 존귀함을 나타내야 한다.

앞 장은 제단을 **이방 숭배**로부터 지켰고, 이제 이 구절은 그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의 질**을 지킨다. 올바른 엘로힘을 올바른 제단에서 섬기면서도 그분께 무성의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Mussar

Do not give YHWH merely what is left over—leftover attention, leftover strength, leftover time. Bring Him a heart that treats His presence as precious.

야훼께 단지 남은 것만 드리지 말라. 남은 관심, 남은 힘,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그분의 임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드리라.

Verse 2

“When there is found in your midst, in any of your gates which YHWH your Elohim gives you, a man or a woman who does what is evil in the eyes of YHWH your Elohim, in transgressing His covenant,”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의 언약을 어기고.”

PaRDeS

Peshat: Moshe describes a serious covenant violation occurring within one of Yisrael's communities. The matter is not merely private wrongdoing but a breach of YHWH's covenant.

페샤트: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언약 위반을 설명한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잘못이 아니라 야훼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이다.

Remez: The phrase “in your midst” warns that spiritual corruption does not always come from outside. It may arise within the covenant community itself.

레메즈: **“너의 가운데에”**라는 표현은 영적 부패가 언제나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님을 경고한다. 그것은 언약 공동체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Drash: Torah describes sin relationally: “transgressing His covenant.” Sin is not merely violation of a regulation; it damages covenant faithfulness.

드라쉬: 토라는 죄를 관계적인 언어로 묘사한다. 곧 **“그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다. 죄는 단순히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함을 훼손한다.

Sod: Covenant establishes sacred order between YHWH and His people. Persistent rebellion attempts to replace that order with another allegiance.

소드: 언약은 야훼와 그분의 백성 사이에 거룩한 질서를 세운다. 지속적인 반역은 그 질서를 다른 충성의 대상으로 대체하려는 행위가 된다.

Energetic Flow

Covenant → Allegiance → Transgression → Investigation → Restoration of Order

언약 → 충성 → 범죄 → 조사 → 질서의 회복

Meaning

Notice again the word **“gates.”** Deuteronomy 16:18 commanded judges to be appointed at the gates. Now those judges encounter exactly the kind of difficult covenant case for which righteous judgment is necessary. Torah moves from the **principle of justice** to its **application**.

Mussar

Spiritual vigilance includes examining what develops **within us**, not merely identifying problems outside us. The most important gates to guard are often our own.

다시 *****성문*****이라는 말에 주목하라. 신명기 16:18 은 성문마다 재판장을 세우라고 명했다. 이제 그 재판장들은 의로운 판단이 필요한 실제적인 언약 사건을 만나게 된다. 토라는 **공의의 원칙**에서 **공의의 적용**으로 이동한다.

영적 경계에는 외부의 문제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문은 종종 우리 자신의 문이다.

Verse 3

“and has gone and served other mighty ones and bowed down to them, or to the sun or to the moon or to any of the host of the heavens, which I have not commanded,”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PaRDeS

Peshat: The covenant violation is identified as idolatry—serving other gods or bowing before the sun, moon, or heavenly host.

Remez: Creation can become an idol when attention stops at the created thing instead of recognizing the Creator who made it.

Drash: The sun and moon are magnificent, but their greatness does not make them worthy of worship. Torah teaches us to distinguish between appreciating YHWH's creation and giving creation the devotion belonging only to YHWH.

페샤트: 언약 위반의 내용은 우상숭배로 밝혀진다.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해와 달과 하늘의 천체들에게 절하는 것이다.

레메즈: 피조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께 나아가지 않고 피조물 자체에 머물 때 창조세계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드라쉬: 해와 달은 장엄하지만 그 장엄함이 예배받을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토라는 야훼의 창조물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오직 야훼께 속한 경배를 피조물에게 드리는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친다.

Sod: Idolatry reverses creation's proper flow. Instead of creation pointing the soul toward its Source, the soul stops at the vessel and forgets the One from whom its light comes.

Energetic Flow

Creator → Creation → Wonder → Recognition → Worship of YHWH

Idolatry interrupts the flow: **Creation → Wonder → Worship of Creation.**

Meaning

The phrase “**which I have not commanded**” returns worship to the authority of YHWH. Human fascination, religious enthusiasm, or cultural tradition cannot determine what covenant worship should be.

Mussar

Ask what receives your deepest awe, trust, attention, and obedience. Idolatry begins whenever something created begins occupying the place that belongs to YHWH.

Verse 4

“and it has been made known to you, and you have heard, and have searched diligently. And see, if it is true and the matter is confirmed, that this abomination has been done in Yisrael,”

PaRDeS

Peshat: A report of serious wrongdoing must be investigated carefully. Judgment cannot rest merely upon accusation or rumor.

소드: 우상숭배는 창조의 올바른 흐름을 뒤집는다. 피조물이 영혼을 그 근원이신 분께 인도해야 하는데, 영혼이 그릇 자체에 머물러 그 빛의 근원이신 분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창조주 → 피조물 → 경이 → 깨달음 → 야훼께 드리는 예배

우상숭배는 이 흐름을 끊는다. **피조물 → 경이 → 피조물 숭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이라는 표현은 예배를 다시 야훼의 권위 아래 둔다. 인간의 매혹이나 종교적 열정이나 문화적 전통이 언약의 예배를 결정할 수 없다.

무엇이 자신의 가장 깊은 경외와 신뢰와 관심과 순종을 받고 있는지 물어보라. 피조물이 야훼께 속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할 때 우상숭배도 시작된다.

“그것이 네게 알려지므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페샤트: 심각한 범죄에 대한 보고는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판결은 단순한 고발이나 소문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Remez: Torah inserts investigation between **hearing** and **judging**. What reaches our ears should not automatically become what we believe.

Drash: Zeal for righteousness without careful examination can itself produce injustice. Torah therefore demands both moral seriousness and evidentiary restraint.

Sod: Truth must be uncovered rather than assumed. The righteous judge seeks to separate appearance from reality before rendering judgment.

Energetic Flow

Report → Hearing → Diligent Investigation → Confirmation → Judgment

Meaning

This verse is a practical fulfillment of “**righteousness, righteousness you shall pursue**” (16:20). Pursuing righteousness means pursuing the **truth of the case**, not merely reaching a quick conclusion.

Mussar

Do not turn hearing into certainty. Before repeating an accusation, forming an opinion, or condemning another person, investigate what can actually be known.

레메즈: 토라는 듣는 것과 판단하는 것 사이에 조사를 둔다. 우리의 귀에 들어온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드라쉬: 철저한 조사 없는 의에 대한 열심은 오히려 불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토라는 도덕적 엄중함과 증거에 대한 신중함을 동시에 요구한다.

소드: 진리는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밝혀져야 한다. 의로운 재판장은 판결하기 전에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사실을 분리하려고 한다.

보고 → 들음 → 철저한 조사 → 확인 → 판단

이 구절은 “**공의, 공의를 너는 추구하라**”(16:20)는 말씀의 실제적인 적용이다. 공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다.

들은 것을 곧바로 확실한 사실로 만들지 말라. 고발을 전달하거나 의견을 형성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실제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살펴보라.

Verse 5

“then you shall bring out to your gates that man or woman who has done this evil matter, and shall stone to death that man or woman with stones.”

PaRDeS

Peshat: Within ancient Yisrael's covenantal judicial system, confirmed idolatry carried the severest legal penalty. This was a public judicial sentence, not permission for private retaliation.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죽이되.”

페샤트: 고대 이스라엘의 언약적 사법 체계에서 확증된 우상숭배에는 가장 엄중한 법적 형벌이

Remez: Returning the matter to the **gate** emphasizes communal accountability under established judges rather than uncontrolled personal vengeance.

Drash: Torah's severity communicates the seriousness of covenant betrayal, while the surrounding requirements of investigation and testimony restrain arbitrary punishment.

Sod: Covenant life cannot flourish when allegiance to its Source is deliberately replaced. The imagery emphasizes removing what destroys the covenant order from within.

Energetic Flow

Transgression → Report → Investigation →
Confirmation → Judicial Accountability

Meaning

The sequence is important. Torah does **not** move directly from accusation to punishment. Verse 4 requires diligent investigation, and the following verses will require multiple witnesses. Severity of consequence therefore increases, rather than decreases, the obligation to establish truth carefully.

Mussar

The greater the consequence of your judgment, the greater your responsibility to know the truth. Strong convictions must be accompanied by equally strong discipline in hearing evidence fairly.

따랐다. 이것은 공적인 사법 판결이지 개인적인 보복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레메즈: 사건이 다시 **성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통제되지 않은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세워진 재판장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한다.

드라쉬: 토라의 엄중함은 언약을 배반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주는 동시에, 그 주변에 규정된 조사와 증언의 요구는 자의적인 처벌을 제한한다.

소드: 언약의 근원이신 분에 대한 충성이 의도적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될 때 언약의 삶은 번성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언약의 질서를 내부에서 파괴하는 것을 제거하는 엄중함을 강조한다.

범죄 → 보고 → 조사 → 확증 → 사법적 책임

그 순서가 중요하다. 토라는 고발에서 곧바로 형벌로 넘어가지 **않는다**. 신명기 17:4 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이어지는 구절은 복수의 증인을 요구한다. 따라서 결과가 엄중할수록 진실을 신중하게 확증해야 할 의무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진다.

판단의 결과가 무거울수록 진실을 확인해야 할 책임도 더욱 무거워진다. 강한 확신에는 증거를 공정하게 듣는 강한 절제가 함께해야 한다.

Verse 6

“At the mouth of two or three witnesses shall he who is to die be put to death. He is not put to death by the mouth of one witness.”

PaRDeS

Peshat: No person may receive the death penalty on the testimony of a single witness. Torah requires the agreement of two or three witnesses.

Remez: Truth is not established merely because one voice speaks confidently. Serious judgment requires confirmation.

Drash: The greater the consequence, the greater the responsibility to establish truth. Torah places safeguards around judgment because irreversible decisions demand extraordinary care.

Sod: Multiple witnesses reflect the movement from isolated perception toward established reality. What one person perceives must be tested before becoming communal judgment.

Energetic Flow

Observation → Witness → Confirmation → Established Matter → Judgment

Torah slows judgment down. A serious accusation must pass through confirmation before becoming a judicial fact.

Meaning

Verse 4 commanded Israel to **“search diligently.”** Verse 6 now establishes one of the mechanisms of that careful investigation: independent testimony. Torah therefore balances two concerns—evil must not be ignored, but neither may an individual be condemned carelessly.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페샤트: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누구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토라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일치된 증언을 요구한다.

레메즈: 한 사람이 확신 있게 말한다고 해서 진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중대한 판단에는 확증이 필요하다.

드라쉬: 결과가 중대할수록 진실을 확증해야 할 책임도 커진다. 돌이킬 수 없는 판결에는 특별한 신중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라는 판단 주위에 안전장치를 둔다.

소드: 복수의 증인은 개인적인 인식에서 확증된 현실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한 사람이 인식한 것은 공동체의 판결이 되기 전에 검증되어야 한다.

관찰 → 증언 → 확증 → 사실의 확립 → 판단

토라는 판결의 속도를 늦춘다. 중대한 고발은 사법적 사실로 인정되기 전에 반드시 확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명기 17:4 는 이스라엘에게 *****“자세히 조사하라”****고 명했다. 6 절은 이제 그 신중한 조사의 방법 가운데 하나인 독립적인 증언을 규정한다. 따라서 토라는 두 가지를 함께 지킨다.

악을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한 사람을 경솔하게
정죄해서도 안 된다.

Mussar

One report is not always the whole story. Resist the temptation to form a final judgment after hearing only one side.

한 사람의 말이 언제나 전체 이야기는 아니다.
한쪽의 말만 듣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려는
유혹을 경계하라.

Verse 7

“The hand of the witnesses shall be first against him to put him to death, and the hand of all the people last. So you shall purge the evil from your midst.”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모든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PaRDeS

Peshat: The witnesses whose testimony established guilt must personally participate first in carrying out the sentence. Afterward the community participates.

페샤트: 유죄를 확정한 증인들이 형 집행에 먼저 참여해야 하며, 그 후에 공동체가 참여한다.

Remez: Torah makes testimony costly. A witness cannot casually accuse someone and then disappear while others bear the consequences of his words.

레메즈: 토라는 증언에 무거운 책임을 부여한다.
증인은 가볍게 누군가를 고발한 뒤 자신의 말이 가져온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사라질 수 없다.

Drash: Words create responsibility. If your testimony can determine another person's fate, you must be prepared to stand behind what you have said.

드라쉬: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신의 증언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면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Sod: The witness becomes inseparable from the judgment his words create. Torah joins **speech and consequence**, reminding us that words are never entirely detached from the one who speaks them.

소드: 증인은 자신의 말로 만들어진 판결과 분리될 수 없다. 토라는 **말과 결과**를 연결하여 말이 그것을 한 사람에게서 완전히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Energetic Flow

Seeing → Testifying → Responsibility → Action → Communal Accountability

봄 → 증언 → 책임 → 행동 → 공동체적 책임

The witness moves from observer to participant. This creates a powerful restraint against careless or malicious testimony.

Meaning

“The hand of the witnesses shall be first.” Torah does not permit accusation to become detached from accountability. The person who says, “I saw it,” must understand the enormous weight of those words.

Mussar

Before speaking negatively about another person, ask: **“Am I prepar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what these words may cause?”**

증인은 관찰자에서 참여자로 이동한다. 이것은 경솔하거나 악의적인 증언을 강하게 억제한다.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토라는 고발과 책임이 분리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내가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이 지닌 엄청난 무게를 이해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기 전에 물으라. **“나는 이 말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Verse 8

“When any matter arises which is too hard for you to judge, between blood and blood, between plea and plea, or between stroke and stroke—matters of strife within your gates—then you shall rise and go up to the place which YHWH your Elohim chooses.”

PaRDeS

Peshat: When local judges encounter a case too difficult to resolve, they must bring it to the central authority at the place YHWH chooses.

Remez: Wisdom includes recognizing when a matter is **too difficult for you**. Knowing your limitations is itself a form of discernment.

Drash: Torah does not demand that every person know every answer. It establishes a path for seeking greater wisdom when personal understanding reaches its limit.

Sod: The movement **“rise and go up”** represents more than geography. Difficult questions can become

“네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페샤트: 지방 재판장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을 야훼께서 택하신 곳의 중앙 권위로 가져가야 한다.

레메즈: 지혜에는 어떤 문제가 **자신에게 너무 어려운 것**임을 인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자체가 분별력이다.

드라쉬: 토라는 모든 사람이 모든 답을 알아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개인의 이해가 한계에 이를 때 더 큰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소드: *****“일어나 올라가라”*****는 움직임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 이상을 나타낸다. 불확실함이 교만이

occasions for spiritual ascent when uncertainty leads a person toward deeper Torah wisdom rather than pride.

아니라 더 깊은 토라의 지혜를 찾게 한다면 어려운 질문도 영적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다.

Energetic Flow

Difficulty → Humility → Seeking Counsel → Greater Wisdom → Resolution

The Torah's answer to complexity is neither guesswork nor stubbornness. It is **humble ascent toward greater wisdom**.

어려움 → 겸손 → 조언을 구함 → 더 큰 지혜 → 해결

복잡한 문제에 대한 토라의 대답은 추측도 고집도 아니다. 그것은 **더 큰 지혜를 향해 겸손히 올라가는 것이다**.

Mean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words in this verse is מִמֶּכָּה (*mimmekha*) — **“too difficult for you.”** The Torah recognizes that even appointed judges have limits. Authority does not mean omniscience. A righteous judge must know when to seek help.

이 구절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는 ****מִמֶּכָּה (미메카) — “네게 너무 어려운”****이다. 토라는 임명된 재판장에게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권위를 가졌다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의로운 재판장은 언제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Mussar

“I do not know” can be the beginning of wisdom. Do not force an answer merely because others expect you to have one. Know when to seek someone with greater knowledge and experience.

“나는 모른다”는 말이 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답을 기대한다고 해서 억지로 답을 만들어 내지 말라. 언제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지를 알라.

Verse 9

“And shall come to the priests, the Lěwites, and to the judge who is in those days, and shall inquire. And they shall declare to you the word of right-ruling.”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PaRDeS

Peshat: Difficult legal questions are brought to the Levitical priests and the judge serving at that time, who provide an authoritative ruling.

페샤트: 어려운 법적 문제는 레위 제사장들과 당시의 재판장에게 가져가며, 그들이 권위 있는 판결을 내린다.

Remez: The phrase “**in those days**” teaches that each generation must seek faithful Torah judgment from the leaders responsible in its own time.

Drash: Torah is received from previous generations but must be faithfully applied to the actual questions faced by the living generation.

Sod: Torah wisdom flows through generations. The source remains YHWH, while each generation receives the responsibility to hear, interpret, and faithfully transmit His instruction.

Energetic Flow

Torah → Teachers → Inquiry → Understanding → Right-Ruling

Meaning

Torah creates a culture in which **asking is honorable**. The difficult case does not remain unresolved because a local judge fears admitting uncertainty. He goes, asks, learns, and returns with instruction.

Mussar

Find people from whom you can genuinely **ask** and **learn**. A teachable person does not lose authority by seeking wisdom; he becomes more trustworthy.

레메즈: ***“당시에”***라는 표현은 각 세대가 자신의 시대에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에게서 신실한 토라의 판단을 구해야 함을 가르친다.

드라쉬: 토라는 이전 세대로부터 전해지지만 살아 있는 세대가 실제로 직면하는 문제에 신실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소드: 토라의 지혜는 세대를 통해 흐른다. 근원은 언제나 야훼이지만 각 세대는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해석하며 신실하게 전달할 책임을 받는다.

토라 → 가르치는 자 → 질문 → 이해 → 올바른 판결

토라는 **질문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를 만든다. 지방 재판장이 자신의 불확실함을 인정하기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는 찾아가 묻고 배우며 가르침을 가지고 돌아온다.

진심으로 **묻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 배우려는 사람은 지혜를 구한다고 권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다.

Verse 10

“And you shall do according to the word which they declare to you from that place which YHWH chooses. And you shall guard to do according to all that they instruct you.”

PaRDeS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Peshat: Once the central court has rendered its decision, Yisrael is commanded to follow the ruling carefully.

Remez: Seeking wisdom is incomplete unless we are willing to act upon what we learn.

Drash: Sometimes people seek counsel only until they hear the answer they already wanted. Torah presents another pattern: **ask sincerely, receive instruction, and then obey.**

Sod: True Torah learning joins **hearing and doing.** Wisdom that remains only in the mind has not yet completed its movement into life.

Energetic Flow

Question → Instruction → Reception → Obedience → Order

Torah wisdom reaches its intended destination when instruction becomes action.

Meaning

Notice the repeated language of **doing**: “**you shall do... guard to do.**” Biblical wisdom is not merely possessing correct information. Torah aims at a life ordered by what has been learned.

Mussar

When you ask for guidance, prepare yourself not merely to **hear** the answer but to **change** because of it. The deepest learning happens when truth reshapes behavior.

페샤트: 중앙 재판 기관이 판결을 내린 후에는 이스라엘이 그 판결을 신중하게 따라야 한다.

레메즈: 지혜를 구하는 것은 배운 것을 실제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완전하지 않다.

드라쉬: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던 답을 들을 때까지만 조언을 구한다. 토라는 다른 방식을 제시한다. **진실하게 묻고, 가르침을 받고, 그 후에 순종하라.**

소드: 참된 토라 학습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연결한다. 생각 속에만 머무는 지혜는 아직 삶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다.

질문 → 가르침 → 받아들임 → 순종 → 질서

토라의 지혜는 가르침이 행동이 될 때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

행함에 관한 반복된 표현에 주목하라. “**행하되... 삼가 행할 것이니.**” 성경적 지혜는 단순히 올바른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토라의 목적은 배운 것에 따라 질서 있게 살아가는 삶이다.

지도를 구할 때 단순히 답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으로 인해 자신이 **변화될** 준비를 하라. 가장 깊은 배움은 진리가 행동을 새롭게 만들 때 일어난다.

“Do according to the Torah in which they teach you, according to the right-ruling which they say to you. You do not turn to the right or to the left from the word which they declare to you.”

PaRDeS

Peshat: Yisrael is commanded to follow the Torah instruction and judicial ruling given by the authorized court. They are not to disregard the decision by turning aside from it.

Remez: “Do not turn right or left” pictures Torah as a straight path. Human preference continually pulls toward one side or another, but covenant faithfulness seeks the path YHWH has established.

Drash: Submission to Torah includes accepting correction when our own interpretation or preference proves mistaken. Teachability is therefore part of obedience.

Sod: The straight path represents alignment. When thought, judgment, and action become aligned with divine instruction, the fragmented life is drawn toward unity.

Energetic Flow

Torah → Instruction → Alignment → Obedience → Stability

Torah provides the path; discipline keeps the person from drifting right or left.

Meaning

The Hebrew emphasizes **תּוֹרָה (Torah) — instruction**. The judicial system is not intended merely to exercise power. Its purpose is to apply YHWH's instruction faithfully so that covenant life remains ordered by Torah.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전하여 준 말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페샤트: 이스라엘은 권위 있는 재판 기관이 내린 토라의 가르침과 판결을 따라야 한다. 그 판결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

레메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표현은 토라를 곧은 길로 묘사한다. 인간의 선호는 계속 한쪽으로 끌어당기지만 언약의 신실함은 야훼께서 세우신 길을 찾는다.

드라쉬: 토라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해석이나 선호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때 교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배우려는 자세는 순종의 일부이다.

소드: 곧은 길은 정렬을 나타낸다.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신적 가르침에 맞추어질 때 분열된 삶은 하나됨을 향해 나아간다.

토라 → 가르침 → 정렬 → 순종 → 안정

토라는 길을 제공하고 절제는 사람이 좌우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 준다.

히브리어는 **תּוֹרָה (토라) — 가르침**을 강조한다. 사법 체계의 목적은 단순히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목적은 야훼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적용하여 언약의 삶이 토라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Mussar

Do not ask only, “**What do I think?**” Learn also to ask, “**What does Torah teach?**” Spiritual maturity requires allowing truth to correct personal preference.

단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만 묻지 말라. **“토라는 무엇을 가르치는가?”**라고 묻는 법도 배우라. 영적 성숙에는 진리가 개인적인 선호를 교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Verse 12

“And the man who acts arrogantly, so as not to listen to the priest who stands to serve there before YHWH your Elohim, or to the judge, that man shall die. So you shall purge the evil from Yisrael.”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야훼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PaRDeS

Peshat: Deliberate, defiant rejection of the established covenant court is treated as a grave offense because it undermines the judicial order given to Yisrael.

페샤트: 세워진 언약의 재판 기관을 고의적이고 반항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진다.

Remez: The central issue is described as acting **יִצְדֹן (zadon)** — **presumptuously, arrogantly**. The danger is not honest questioning but pride that refuses to listen.

레메즈: 중심 문제는 **יִצְדֹן (자돈)** — **주제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위험한 것은 정직한 질문이 아니라 듣기를 거부하는 교만이다.

Drash: Torah distinguishes between struggling to understand and refusing to be taught. Questions can lead toward wisdom; arrogance closes the door to wisdom.

드라쉬: 토라는 이해하기 위해 씨름하는 것과 가르침 받기를 거부하는 것을 구별한다. 질문은 지혜로 인도할 수 있지만 교만은 지혜로 들어가는 문을 닫는다.

Sod: Pride makes the self its own final authority. Covenant life reverses this movement by placing the self beneath YHWH's instruction.

소드: 교만은 자신을 최종 권위로 만든다. 언약의 삶은 자신을 야훼의 가르침 아래 둬으로써 이러한 움직임을 뒤집는다.

Energetic Flow

Pride → Refusal to Hear → Rebellion → Disorder

The opposite flow is: Humility → Hearing → Instruction → Obedience → Order.

Meaning

Notice that the problem is “**not listening**.” Biblical obedience begins with hearing. This reflects the pattern of שמע (shema): hearing that leads to responsive action.

Mussar

One of the clearest signs of pride is becoming **unteachable**. Ask yourself: *When correction comes, do I listen carefully, or immediately defend myself?*

교만 → 듣기를 거부함 → 반역 → 무질서

반대의 흐름은 겸손 → 들음 → 가르침 → 순종 → 질서이다.

문제가 **“듣지 아니하는 것”**임에 주목하라. 성경적 순종은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שמע (שמע), 곧 반응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들음의 패턴을 반영한다.

교만의 가장 분명한 징후 가운데 하나는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스스로 물으라. *교정을 받을 때 나는 주의 깊게 듣는가, 아니면 즉시 자신을 방어하는가?*

Verse 13

“And let all the people hear and fear, and no longer do arrogantly.”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제멋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PaRDeS

Peshat: Public accountability is intended to teach the entire community the seriousness of defiant rebellion so that others will not act presumptuously.

Remez: Torah joins two verbs: **hear and fear**. Hearing produces awareness; proper fear gives that awareness moral weight.

Drash: A healthy community learns not only from instruction but also from consequences. Seeing the results of destructive choices can teach wisdom before others repeat them.

페샤트: 공개적인 책임은 공동체 전체에게 반항적인 행위의 심각성을 가르쳐 다른 사람들이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레메즈: 토라는 두 동사를 연결한다. **듣고 두려워하라**. 들음은 깨달음을 낳고 올바른 두려움은 그 깨달음에 도덕적 무게를 부여한다.

드라쉬: 건강한 공동체는 가르침뿐 아니라 결과에서도 배운다. 파괴적인 선택의 결과를 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반복하기 전에 지혜를 가르칠 수 있다.

Sod: Yirah—reverent fear establishes an inner boundary. Where external law says, “Do not cross,” reverence develops an inward desire not to cross.

Energetic Flow

Hearing → Yirah → Restraint → Wisdom → Communal Stability

Meaning

Torah's objective is not punishment for its own sake. The stated goal is that the people “**hear and fear.**” Judgment serves instruction; consequences are intended to protect the future of the community.

Mussar

Wisdom does not require experiencing every mistake personally. **Learn from the consequences you see in the lives of others.**

소드: 이라—경외함은 내면에 경계를 세운다. 외적인 법이 “넘지 말라”고 말할 때 경외는 그 경계를 넘지 않으려는 내적인 마음을 형성한다.

들음 → 경외 → 절제 → 지혜 → 공동체의 안정

토라의 목적은 처벌 자체에 있지 않다. 명시된 목적은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판결은 가르침을 섬기며, 결과는 공동체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혜를 얻기 위해 모든 실수를 자신이 직접 경험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의 삶에서 보게 되는 결과를 통해 배우라.**

Verse 14

“When you come to the land which YHWH your Elohim is giving you, and shall possess it and shall dwell in it, and you shall say, ‘Let me set a sovereign over me like all the nations that are around me,’”

PaRDeS

Peshat: Moshe anticipates a future time when settled Yisrael will desire a king like the surrounding nations. Torah therefore gives instructions governing monarchy before that situation arises.

Remez: The dangerous phrase is “**like all the nations.**” Comparison can create desires that did not arise from YHWH's calling but from watching others.

“네가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뜻이 나거든.”

페샤트: 모세는 정착한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처럼 왕을 원하게 될 미래를 내다본다. 따라서 토라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왕권을 다스리는 규례를 준다.

레메즈: 위험한 표현은 *****“모든 민족들 같이”*****이다. 비교는 야훼의 부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겨난 욕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Drash: Yisrael was called to be distinct, yet the temptation would be to measure itself by the political structures and symbols of surrounding nations. Covenant identity becomes weakened when comparison determines aspiration.

Sod: The soul loses awareness of its unique calling when it defines itself through another. Comparison moves attention outward; covenant calls attention back toward the purpose assigned by YHWH.

Energetic Flow

Observation → Comparison → Desire → Imitation → Identity Shift

Covenant reverses this flow: **Calling → Identity → Discernment → Faithfulness.**

Meaning

The words **כְּכֹל־הַגּוֹיִם** (*kekhol-haggoyim*) — “like all the nations” anticipate the later request in 1 Samuel 8. The problem is not simply political organization; Torah exposes the deeper human tendency to assume that what others possess must also be necessary for us.

Mussar

Be careful when your reason for wanting something begins with, “**Everyone else has it.**” Before imitating others, ask whether the desire agrees with the calling YHWH has given you.

드라쉬: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주변 민족들의 정치적 구조와 상징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비교가 열망을 결정할 때 언약적 정체성은 약해진다.

소드: 영혼이 다른 존재를 통해 자신을 정의할 때 자신의 고유한 부르심에 대한 인식을 잃는다. 비교는 시선을 밖으로 돌리지만 언약은 야훼께서 주신 목적을 향해 시선을 다시 돌린다.

관찰 → 비교 → 욕망 → 모방 → 정체성의 변화

언약은 이 흐름을 뒤집는다. **부르심 → 정체성 → 분별 → 신실함.**

****כְּכֹל־הַגּוֹיִם (케콜 하고임) — “모든 민족들**

같이”**라는 말은 후에 사무엘상 8 장에서 나타나는 요청을 미리 보여 준다. 문제는 단순한 정치 조직이 아니다. 토라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깊은 성향을 드러낸다.

무엇인가를 원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로 시작될 때 조심하라. 다른 사람을 따라 하기 전에 그 욕망이 야훼께서 주신 부르심과 일치하는지를 물으라.

Verse 15

“you shall certainly set a sovereign over you whom YHWH your Elohim shall choose. Set a sovereign over

“반드시 네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you from among your brothers. You are not allowed to set a foreigner over you, who is not your brother.”

PaRDeS

Peshat: If Yisrael establishes a king, the king must be the one YHWH chooses and must come from among the covenant people.

Remez: Israel may desire a king, but Torah immediately places the desire beneath **divine choice**. Human preference does not have the final word.

Drash: Biblical leadership is not fundamentally self-appointed. Leadership is a stewardship received under YHWH's authority and exercised within covenant responsibility.

Sod: The king stands above the people politically, yet he remains beneath YHWH spiritually. Torah therefore creates an important hierarchy: **YHWH → Torah → King → People**. The king is never the highest authority.

Energetic Flow

YHWH's Choice → Calling → Leadership → Service → Covenant Order

The nations may exalt the king; Torah places the king under YHWH.

Meaning

This begins one of Torah's most remarkable teachings about political power. Yisrael may have a king, but Torah immediately begins **limiting the king**. His selection, identity, possessions, desires, and eventually even his daily reading will all be placed under Torah.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지요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페샤트: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경우 그 왕은 야훼께서 선택하신 자이어야 하며 언약 백성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

레메즈: 이스라엘이 왕을 원할 수 있지만 토라는 즉시 그 욕망을 **하나님의 선택** 아래 둔다. 인간의 선호가 최종 결정권을 갖지 않는다.

드라쉬: 성경적 지도력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 지도력은 야훼의 권위 아래서 받아 언약적 책임 안에서 행사하는 청지기적 사명이다.

소드: 왕은 정치적으로 백성 위에 서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야훼 아래에 있다. 따라서 토라는 중요한 질서를 세운다. **야훼 → 토라 → 왕 → 백성**. 왕은 결코 최고의 권위가 아니다.

야훼의 선택 → 부르심 → 지도력 → 섬김 → 언약의 질서

민족들은 왕을 높일 수 있지만 토라는 왕을 **야훼 아래에** 둔다.

이것은 정치 권력에 관한 토라의 가장 놀라운 가르침 가운데 하나를 시작한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을 수 있지만 토라는 즉시 **왕의 권력을 제한하기** 시작한다. 그의 선택, 신분, 소유, 욕망, 그리고 결국 그의 매일의 읽기까지 모두 토라 아래에 놓이게 된다.

Mussar

Authority never removes accountability. The greater the authority a person receives, the more important it becomes that he remain under YHWH's instruction.

권위가 책임을 제거하지 않는다. 사람이 더 큰 권위를 받을수록 야훼의 가르침 아래 머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Verse 16

“Only, he is not to increase horses for himself, nor cause the people to return to Mitsrayim to increase horses, for YHWH has said to you, ‘Do not return that way again.’”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PaRDeS

Peshat: Israel's king must not multiply horses or send the people back toward Egypt to acquire them. His military power is deliberately limited by Torah.

페샤트: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두거나 그것을 얻기 위해 백성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토라는 왕의 군사력을 의도적으로 제한한다.

Remez: Horses represent military strength and human security. The king is warned not to place his confidence in what appears powerful to the nations.

레메즈: 말은 군사력과 인간적인 안전을 나타낸다. 왕은 민족들이 강하다고 여기는 것에 자신의 신뢰를 두지 말라는 경고를 받는다.

Drash: Egypt was the place from which YHWH delivered Yisrael. The pursuit of security must never become a reason to return spiritually or practically to the system of bondage from which YHWH has delivered His people.

드라쉬: 애굽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나오게 하신 곳이다. 안전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야훼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신 종살이의 체계로 영적으로나 실제로도 돌아가서는 안 된다.

Sod: Redemption has a direction. YHWH brings His people **out of Egypt and toward covenant life.** Returning to Egypt reverses the movement of redemption—freedom begins turning back toward bondage.

소드: 구속에는 방향이 있다. 야훼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언약의 삶을 향해 인도하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구속의 방향을 뒤집는 것으로, 자유가 다시 종살이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다.

Energetic Flow

Fear → Search for Security → Accumulation of Power
→ Dependence on Egypt → Return toward Bondage

Torah redirects the flow: Trust in YHWH → Obedience
→ Freedom → Covenant Security.

Meaning

The repeated phrase **לֹא-יִרְבֶּה (lo-yarbeh)** — “he shall not multiply” begins Torah's three restraints upon royal power: **horses, wives, and silver and gold**. The king must resist the temptation to measure greatness by accumulation.

Mussar

Be careful that your search for security does not lead you back toward something from which YHWH has already brought you out. **Not every place that promises security leads toward freedom.**

두려움 → 안전을 찾음 → 힘을 축적함 → 애굽을
의지함 → 종살이를 향해 돌아감

토라는 이 흐름을 다시 돌린다. **야훼를 신뢰함 →
순종 → 자유 → 언약 안의 안전.**

반복되는 **לֹא-יִרְבֶּה (로 야르베)** — “많이 두지
말라”**는 표현은 왕권에 대한 토라의 세 가지
제한, 곧 **말, 아내, 은과 금**에 대한 제한을
시작한다. 왕은 위대함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로 평가하려는 유혹을 거부해야 한다.

안전을 찾으려는 마음 때문에 야훼께서 이미
나오게 하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안전을 약속하는 모든 곳이 자유를 향해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Verse 17

“And he is not to increase wives for himself, lest his heart turn away; nor is he to greatly increase silver and gold for himself.”

PaRDeS

Peshat: The king must not multiply wives or accumulate excessive wealth. Torah limits both royal relationships and royal possessions because they can corrupt his heart and rule.

Remez: The Torah identifies the true battlefield of leadership: **the heart**. The king may appear powerful outwardly while inwardly his heart is being turned away.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페샤트: 왕은 아내를 많이 두거나 과도한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 토라는 이러한 것들이 그의
마음과 통치를 부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왕의
관계와 소유를 제한한다.

레메즈: 토라는 지도력의 진정한 전쟁터가
마음임을 보여 준다. 왕은 겉으로 강해 보이면서도
내면에서는 그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돌아설 수
있다.

Drash: Power expands access to desire. Therefore greater authority requires greater restraint, not greater indulgence.

Sod: The Hebrew speaks of the heart **turning aside**. The danger of abundance is not abundance itself but the possibility that many attachments gradually pull the heart away from its single covenantal center.

Energetic Flow

Abundance → Attachment → Divided Desire → Turning Heart → Covenant Drift

Torah protects the king's heart by limiting what he is permitted to multiply around himself.

Meaning

Notice the repeated **לו (lo)** — “**for himself.**” Horses **for himself**, wives **for himself**, silver and gold **for himself**. Torah exposes the danger of leadership becoming self-centered. Authority was given for service, but accumulation can slowly transform service into self-exaltation.

Mussar

Ask yourself: “**What am I multiplying for myself?**” Possessions, recognition, influence, or relationships become spiritually dangerous when accumulation becomes a substitute for faithfulness.

Verse 18

“And it shall be, when he sits on the throne of his reign, that he shall write for himself a copy of this Torah in a book, from the one before the priests, the **Lēwites.**”

PaRDeS

드라쉬: 권력은 욕망을 충족시킬 기회를 확대한다. 그러므로 더 큰 권위에는 더 많은 방종이 아니라 더 큰 절제가 필요하다.

소드: 히브리어는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것**을 말한다. 풍요의 위험은 풍요 자체가 아니라 수많은 애착이 마음을 언약의 유일한 중심에서 조금씩 끌어낼 수 있다는 데 있다.

풍요 → 애착 → 나뉜 욕망 → 돌아서는 마음 → 언약에서 멀어짐

토라는 왕이 자기 주변에 과도하게 쌓을 수 있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보호한다.

반복되는 **לו (lo)** — “자기를 위하여”에 주목하라. **자기를 위한 말, 자기를 위한 아내들, 자기를 위한 은과 금**이다. 토라는 지도력이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 위험을 드러낸다. 권위는 섬김을 위해 주어졌지만 축적은 섬김을 서서히 자기 높임으로 바꿀 수 있다.

스스로 물으라.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늘리고 있는가?**” 소유, 인정, 영향력, 관계는 그것을 쌓는 일이 신실함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위험해진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Peshat: Upon taking the throne, the king must personally have a copy of the Torah written from the authoritative Torah kept with the Levitical priests.

Remez: Before Torah gives the king more power, it gives him a **scroll**. His most important royal possession is not the crown, army, treasury, or palace, but the words that place him beneath YHWH.

Drash: The king does not merely receive Torah from someone else. He participates in writing it. The act forces him to slow down, encounter every word, and remember that the law he administers is also the law governing him.

Sod: The earthly king writes the Torah while sitting upon his throne because his throne must remain beneath the higher Kingship of YHWH. The scroll beside the throne silently declares: **“You rule, but you are also ruled.”**

Energetic Flow

Throne → Torah → Submission → Wisdom → Righteous Leadership

The throne gives authority; the Torah gives boundaries and direction to that authority.

Meaning

The phrase **מִשְׁנֵה הַתּוֹרָה (mishneh haTorah)** means a **copy/repetition of this Torah**. The king's first great task upon receiving power is therefore not expansion but **Torah internalization**. Before ruling others, he must place himself under instruction.

Mussar

페샤트: 왕위에 오른 왕은 레위 제사장들이 보관하는 권위 있는 토라를 따라 자신을 위한 토라의 사본을 기록해야 한다.

레메즈: 토라는 왕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기 전에 **두루마리**를 준다. 왕의 가장 중요한 소유물은 왕관이나 군대나 보물이나 궁전이 아니라 그를 야훼 아래에 두는 말씀이다.

드라쉬: 왕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서 토라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것을 기록하는 일에 참여한다. 이 행위는 그가 천천히 모든 말씀을 대면하게 하며 자신이 시행하는 법이 동시에 자신을 다스리는 법임을 기억하게 한다.

소드: 지상의 왕이 왕좌에 앉아 토라를 기록하는 것은 그의 왕좌가 야훼의 더 높은 왕권 아래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왕좌 곁의 두루마리는 조용히 선언한다. **“너는 다스리지만 너 또한 다스림을 받는다.”**

왕좌 → 토라 → 복종 → 지혜 → 의로운 지도력

왕좌는 권위를 주지만 토라는 그 권위에 경계와 방향을 준다.

****מִשְׁנֵה הַתּוֹרָה (미/쉬/네 하/토라)****라는 표현은 **이 토라의 사본/반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권력을 받은 왕의 첫 번째 중요한 임무는 확장이 아니라 **토라를 내면화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가르침 아래 두어야 한다.

Before asking how you will lead others, ask what is leading you. Authority without a higher authority over it easily becomes self-rule.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묻기 전에 무엇이 자신을 이끌고 있는지를 물으라. 자신 위에 더 높은 권위를 두지 않는 권력은 쉽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통치가 된다.

Verse 19

“And it shall be with him, and he shall read it all the days of his life, so that he learns to fear YHWH his Elohim and guard all the Words of this Torah and these laws, to do them,”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PaRDeS

Peshat: The king must keep the Torah with him and read it throughout his life so that he learns to fear YHWH and faithfully obey His commandments.

페샤트: 왕은 토라를 자기 곁에 두고 평생 읽어 야훼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그분의 모든 명령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

Remez: Even a king must learn to fear YHWH. Yirah is not automatically acquired through position, age, experience, or knowledge. It must continually be cultivated.

레메즈: 왕조차도 야훼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라는 지위나 나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길러져야 한다.

Drash: Torah reading is intended to produce transformation: read → learn → fear → guard → do. Reading that never reaches action has stopped before reaching its intended destination.

드라쉬: 토라 읽기의 목적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읽음 → 배움 → 경외 → 지킴 → 행함. 행동에 이르지 못하는 읽기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멈춘 것이다.

Sod: The king carries the scroll so that the visible throne does not cause him to forget the invisible King. Continual Torah consciousness keeps human greatness in the presence of divine greatness.

소드: 왕이 두루마리를 곁에 두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왕좌 때문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야훼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속적인 토라 의식은 인간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머물게 한다.

Energetic Flow

Read → Learn → Fear YHWH → Guard → Do → Become Faithful

읽음 → 배움 → 야훼를 경외함 → 지킴 → 행함 → 신실하게 됨

Torah is not merely information to the king; it is the daily discipline by which the king's character is formed.

토라는 왕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왕의 인격을 형성하는 매일의 훈련이다.

Meaning

וְקָרָא בֹ כָל־יְמֵי חַיָּיו — *veqara vo kol-yemei hayyav*:
“He shall read it all the days of his life.” The king never graduates from Torah. The more responsibility he receives, the more necessary continual Torah study becomes.

וְקָרָא בֹ כָל־יְמֵי חַיָּיו — 베카라 보 콜 예메이 하야브:
“그가 평생에 그것을 읽을 것이다.” 왕은 결코 토라를 졸업하지 않는다. 더 많은 책임을 받을수록 지속적인 토라 공부는 더욱 필요해진다.

Mussar

Do not study Torah merely until you know something.
Study until what you know begins changing how you live.

단지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까지만 토라를 공부하지 말라. 알게 된 것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까지 공부하라.

Verse 20

“so that his heart is not lifted up above his brothers, so as not to turn aside from the command, right or left, so that he prolongs his days in his reign, he and his children, in the midst of Yisrael.”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PaRDeS

Peshat: Continual Torah study protects the king from pride and deviation. Faithfulness enables his rule and dynasty to endure within Yisrael.

페샤트: 지속적인 토라 공부는 왕을 교만과 탈선으로부터 보호한다. 신실함은 그의 통치와 왕조가 이스라엘 가운데 지속되게 한다.

Remez: Torah reveals the deepest danger of kingship: “his heart is lifted up above his brothers.” The king may occupy a higher office without becoming a higher kind of human being.

레메즈: 토라는 왕권의 가장 깊은 위험을 보여 준다.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왕은 더 높은 직책에 있을 수 있지만 더 높은 종류의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Drash: The Torah deliberately calls the king's subjects “his brothers.” Authority must never erase fraternity. The leader remains one of the covenant people whom he serves.

드라쉬: 토라는 의도적으로 왕의 백성을 “그의 형제”라고 부른다. 권위가 형제됨을 지워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자신이 섬기는 언약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아 있다.

Sod: Pride elevates the self above others; Torah places the self beneath YHWH. Therefore continual Torah study produces the inner downward movement of humility necessary for someone outwardly elevated upon a throne.

Energetic Flow

Torah → Yirah → Humility → Obedience → Stability → Endurance

Without Torah: Power → Self-Exaltation → Deviation → Instability.

Meaning

This is the climax of Torah's teaching concerning the king. The purpose of daily Torah study is ultimately the formation of **humility**. The king possesses authority, but Torah continually whispers: **“These are your brothers.”**

Mussar

The true test of elevation is whether your heart remains low. If responsibility, knowledge, wealth, or influence causes you to see others as beneath you, the blessing has begun becoming a spiritual danger.

소드: 교만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 위로 높이지만 토라는 자신을 야훼 아래에 둔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토라 공부는 외적으로 왕좌 위에 높여진 사람에게 필요한 내적인 낮아짐, 곧 겸손을 만들어 낸다.

토라 → 경외 → 겸손 → 순종 → 안정 → 지속

토라가 없으면 권력 → 자기 높임 → 탈선 → 불안정으로 흐른다.

이것이 왕에 관한 토라의 가르침의 절정이다. 매일 토라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겸손**을 형성하는 것이다. 왕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토라는 계속해서 말한다. **“이들은 너의 형제들이다.”**

높아짐의 진정한 시험은 마음이 낮은 곳에 머무는가에 있다. 책임이나 지식이나 부나 영향력이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보게 만든다면 그 축복은 이미 영적인 위험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